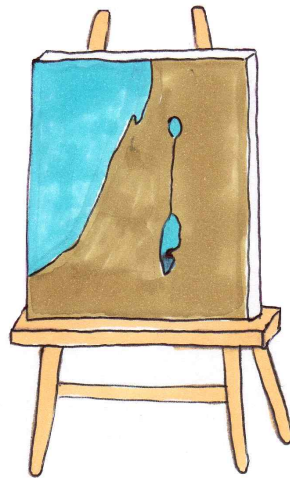


4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교회사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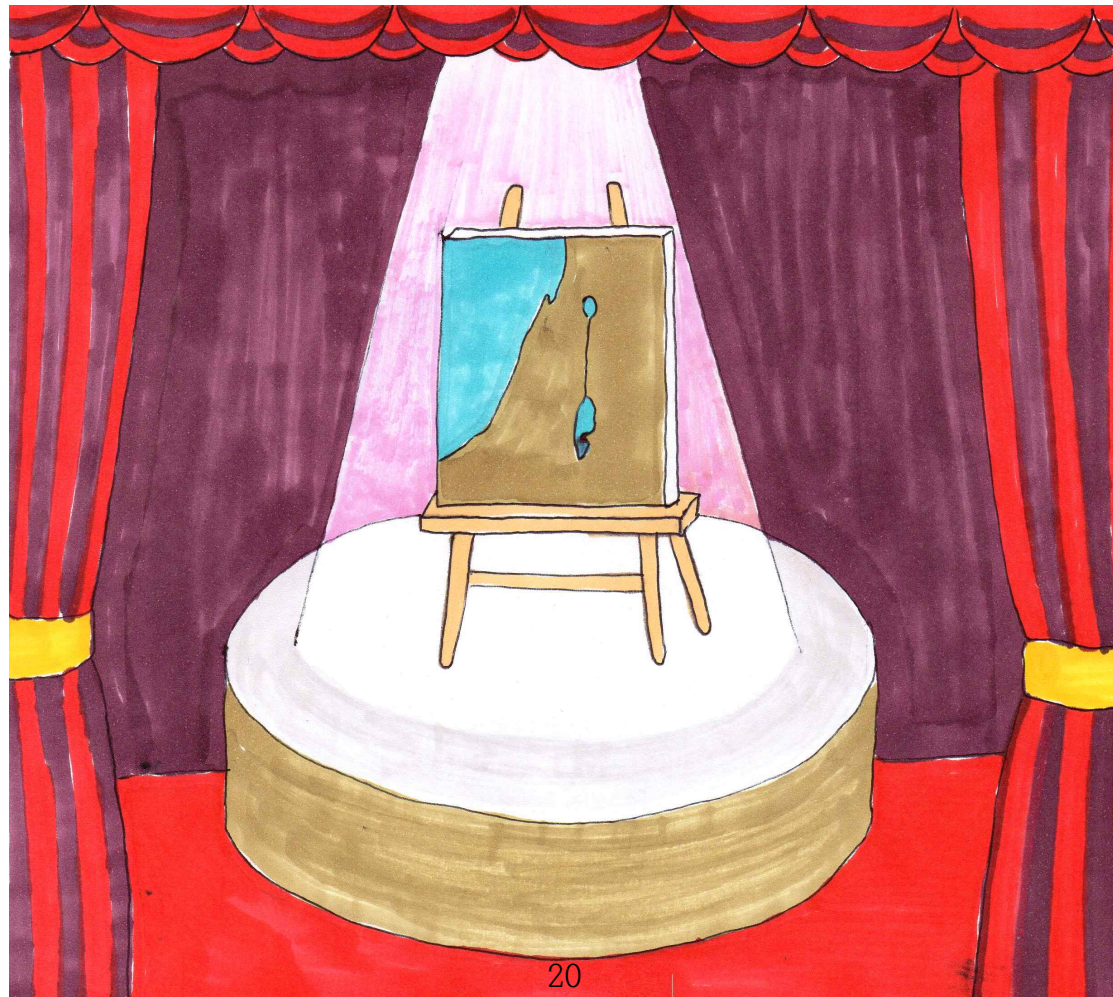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하나님나라의 모델이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앞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무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 중에 힘센 그 누군가가 왕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류역사는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였고,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여
세상 곳곳에 흩어놓으셨어요.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지리적으로 어느 특정한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이 생겼는데
그들이 정착해서 살 영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흠어진 인류를
다시 모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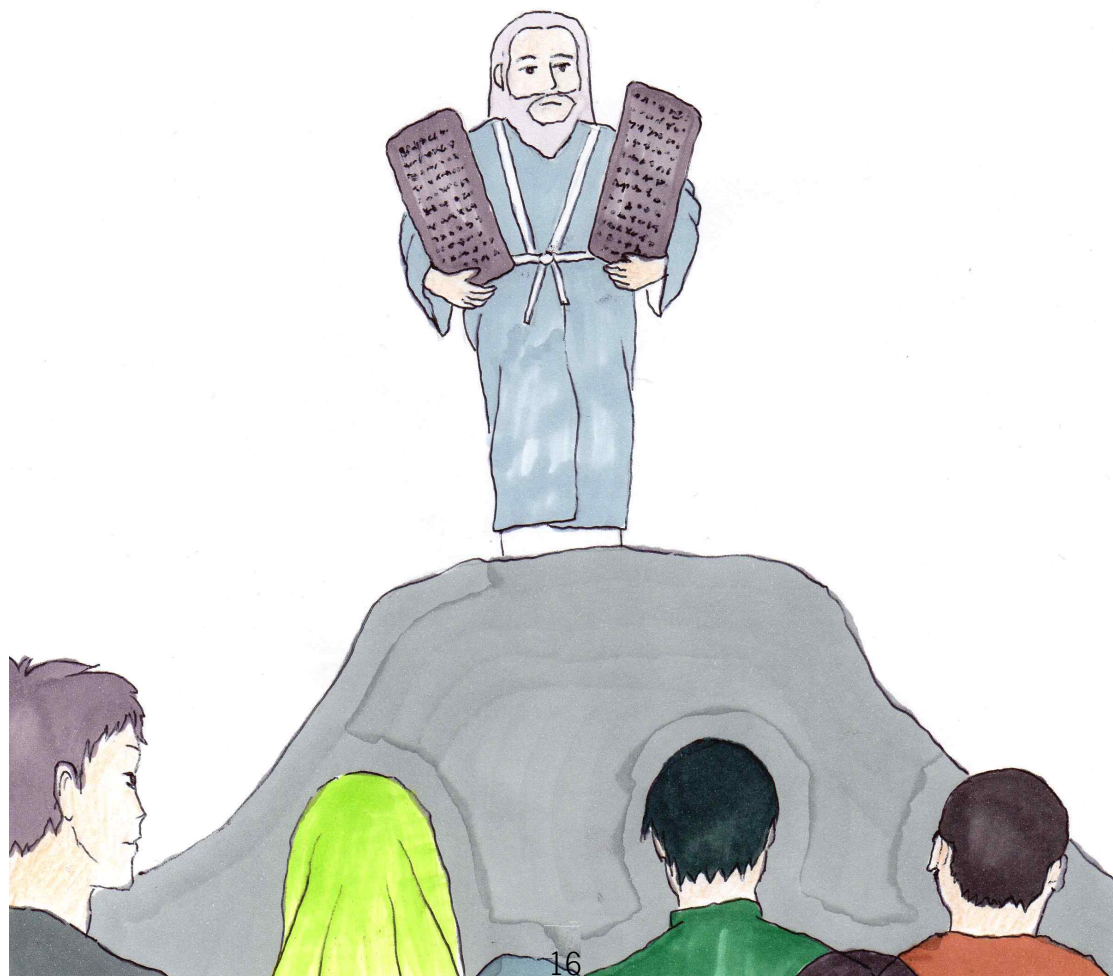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따르면
이 민족은 강한 민족이기보다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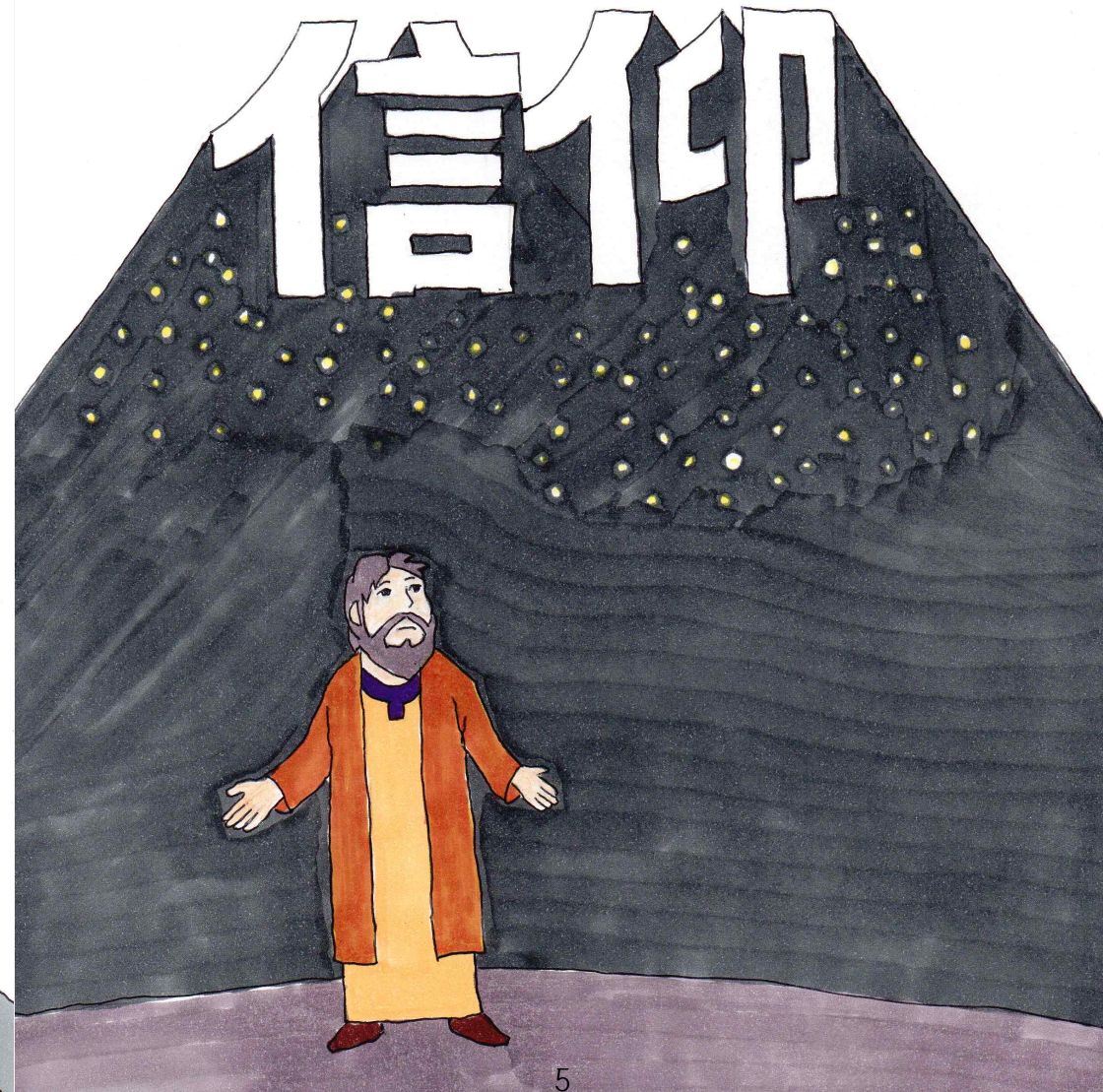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자기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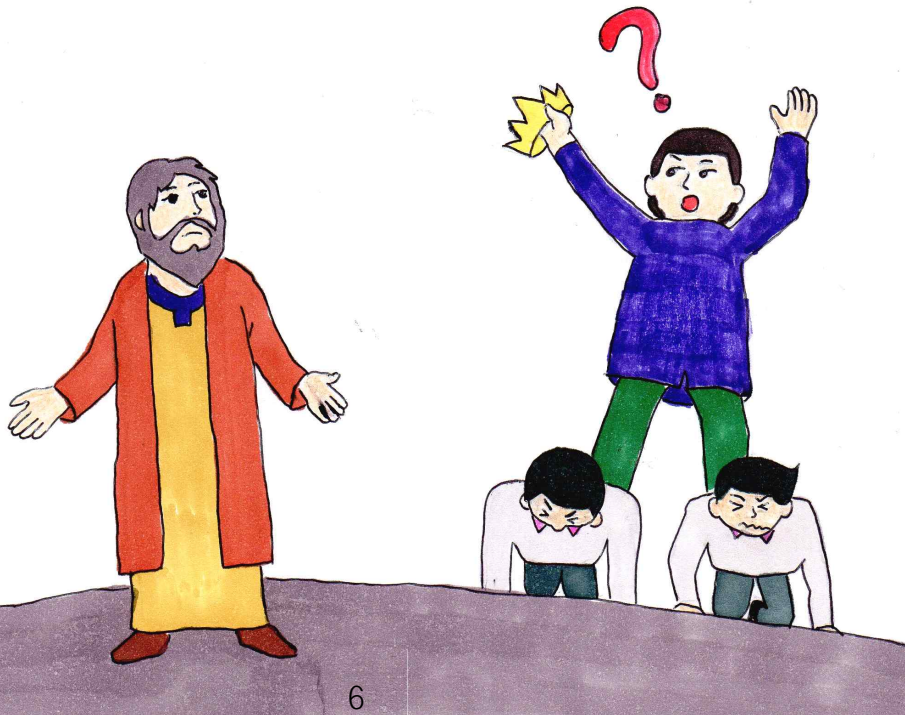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에 걸맞은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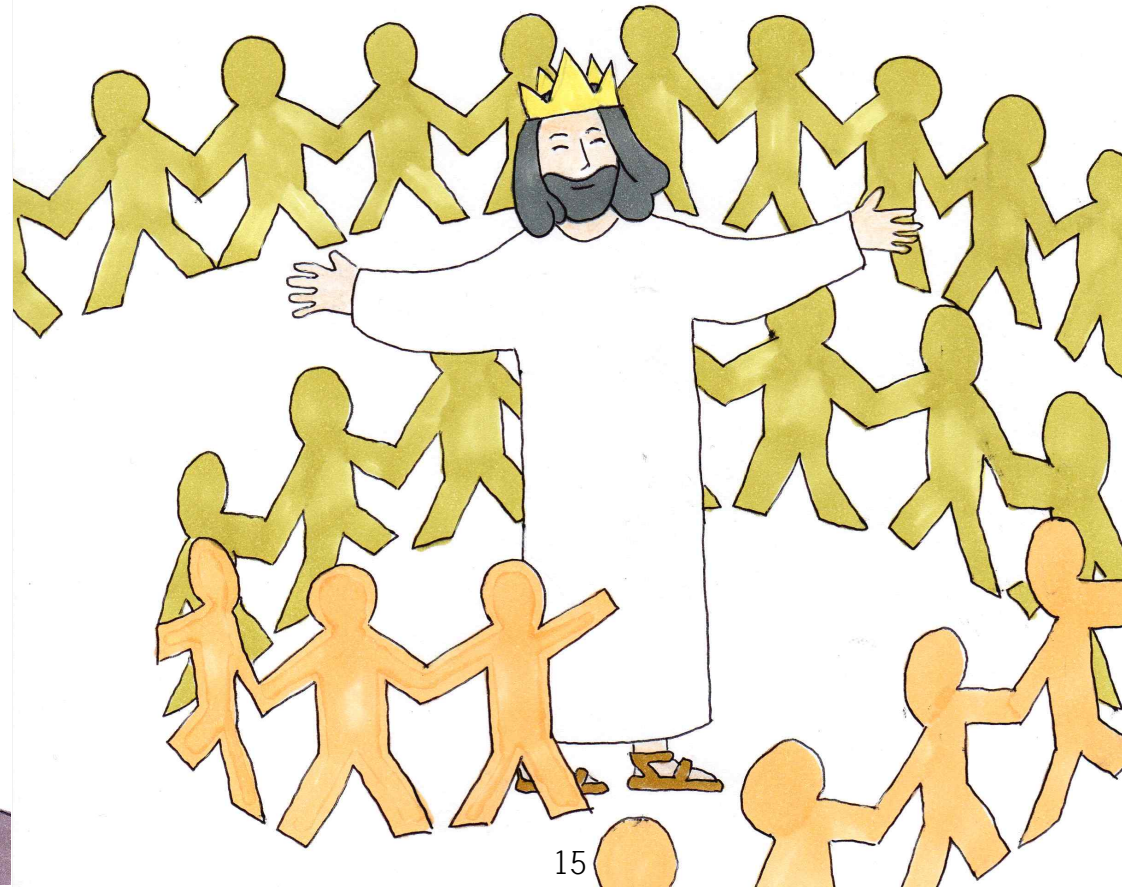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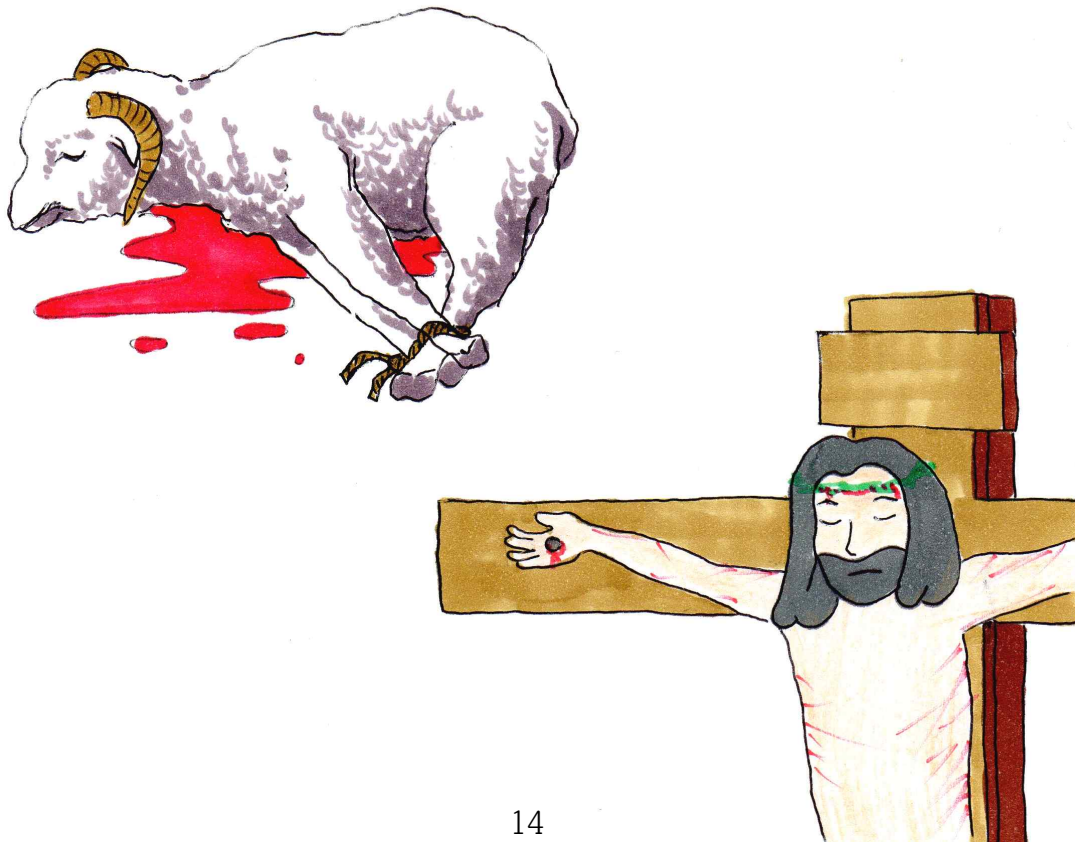
아브라함이 만일 강한 민족의 족장이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강했기에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될 수 없지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명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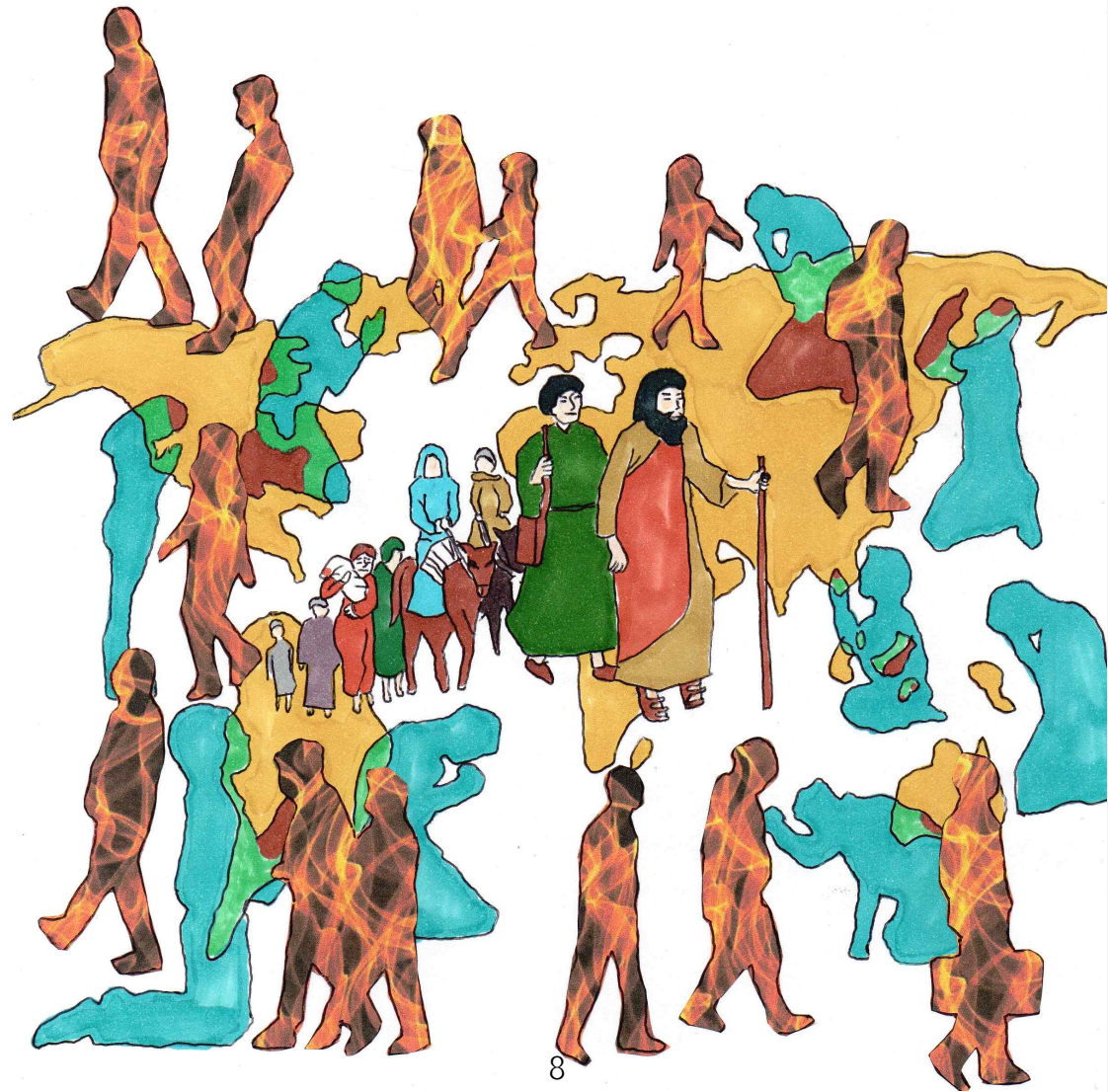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어린양처럼 자신이 흘리신 피의 댓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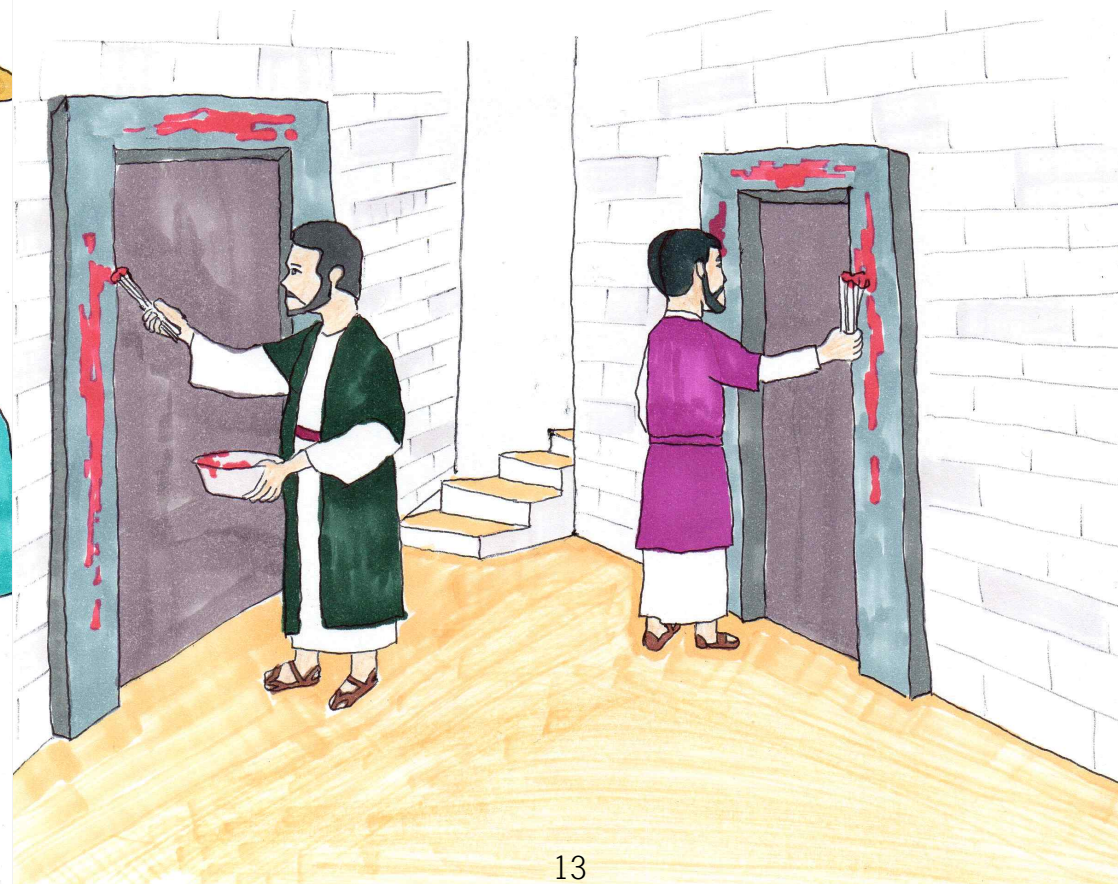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을 계획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서 특히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신 것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구원을 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 괴롭히던 이집트로부터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죽음의 바다를 가르면서 말이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그의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 이어졌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의 모델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를 주목하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